

# 광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장 적다

### 183가구 ... 전국 유일 200가구 미만 기록

### 일반 미분양도 줄어 공급-수요 균형 맞아

광주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적으로 나타났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전담보다 줄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3가구로 전담보다 8가구(4.2%)가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가

구 미만을 기록했다. 6대 광역시인 부산(825가구), 인천(2842가구), 대구(1316가구), 대전(779가구), 울산(962가구)과 비교해도 수치가 낮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 3348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1233가구로 떨어졌고, 2011년 12월엔 2499가구까지 떨어진 뒤 현재까지 200가구 안팎의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2008년 12월 1만2384가구나 있었지

만 2010년 12월 1809가구까지 감소한 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8월 기준 2087가구로, 전담(2183가구)보다 96가구(4.4%) 줄었다. 전남지역은 2010년 12월 이후 꾸준히 2000세대 가량의 미분양 수치를 기록 중이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19가구로 전담(6만7672가구)보다 447가구가 늘어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4.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 및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규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롯데백화점, 가을 세일 테마는 '가족'

### 미술공연·유모차 경매 이벤트 등 다양

'가족을 공략하면 매출이 쑥쑥.'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일부터 진행되는 가을 정기 바겐세일을 '가족 테마'로 꾸민다. 올해 바겐세일 매출 가운데 가족 관련 상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 패턴이 개인에서 가족 중심으로 변화한 것에 따른 전략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세일 기간 매장 곳곳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 및 이벤트를 갖는다. 먼저 5일, 12일 등 세일 주말마다 '롯데 매직 페스티벌'을 열어 전 층에서 '신기한

미술공연'을 진행한다. 고객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며 체험 강좌도 마련했다. 10일 임산부의 날에는 임산부를 위해 30%의 특별 할인 행사를 갖고, 수입 유모차 경매 이벤트, 임산부를 위한 임신 육아 강좌 등의 행사도 연다. 1층 잡화매장에서는 면접 등 상황별 맞춤형 메이크업 강좌가 진행된다.

아이 때문에 쇼핑이 힘든 고객에게는 '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8층 어린이 전용 라운지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유아 돌보미 전문 교사가 고객의 쇼핑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준다.

이외에도 2일부터 10일까지 '아웃도어 박람회', 9일부터 13일까지 '구두박람회', 17일부터 20일까지 '해의명품 박람회' 등 인기 상품 위주의 박람회를 기획했다. 박람회에서는 알뜰 쇼핑족을 위해 최대 80% 특별할인 혜택 및 경품 행사를 열고, 실속 쇼핑 기회를 제공한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세일 기간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장소가 아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지역 수출기업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

### 광주본부세관, 상설 교육 과정 신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준구)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FTA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본부세관은 10월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FTA 상설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이 과정은 ▲인증수출자제도 및 인증 실무 ▲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 활용 ▲원산지 검증 실무(검증절차 및 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운영한다.

인증수출자제도에 관한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춘 기업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와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광주본부세관은 "기업의 인증요건 심사 시 원산지 관리 전담자 변경,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확인서류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인증불허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에 대한 FTA 교육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주본부세관은 자동차, 전자제품, 농수산물 등 지역 대표 산업에 대한 '산업군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원산지관리 증명능력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방문, 삼성전자 임직원과 200여개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 FTA 실무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FTA 개요와 필요성,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첫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본부세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원산지관리 증명능력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동양그룹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동양그룹이 지난 30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테리어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자금 경색과 위기론 심화로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최근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나 자산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100억원 규모이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만기도래 회사채와 CP는 총 1조 1000억원에 이른다. 동양그룹은 주말 내내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행위) 신청 등을 놓고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

해졌다. 일단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는 부도를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들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3개 계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도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연합뉴스



광은, 31사단에 성금 전달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전 지역 향토부대인 보병 제31사단(사단장 박병기)을 방문해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군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광주은행 제공>

# NH농협은행 '내생애 정기에적금' 최대 실적

### 출시 8영업일만에 1만계좌

NH농협은행은 최근 출시한 '내생애 아름다운 정기에 적금'이 출시 후 8영업일만인 지난달 24일자로 1만494좌, 1124억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농협은행 수신상품 중 최단기간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출시되었던 '내생애 아름다운 정기에 적금'은 장·노년층을 주고객층으로 시니어고객 및 조손(祖孫)공동가입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산관리 상담, 재해사망보장 및 장례할인서비스 등 시니어층에 필요한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상품은 만 4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0.1%p,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상품에 가입하면 각각 0.2%p, 당행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0.2%p의 우대금리로 제공된다.

또한, 상품 가입 중 재해로 가입고객이 사망 시 최고 600만원을 장례준비금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가입 후 6개월이후 가족의 애경사 발생 시 기본금리로 긴급자금 인출서비스도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전남 모든 시군 판매 확대

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총국장 김영조)은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동·연동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지난 2012년 전남 8개 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남 모든 시군에서

상품가입(시설작물 9개 품목)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농업용시설물과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9개 시설작물(수박,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장미, 국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단동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이면 가능하고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을 함께 가입하고자 할 때

는 하우스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 보상이 되고,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김영조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장은 "이상기후 등으로 잦아지는 대형재해도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필수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www.gujulcho.co.kr

제8회 슬슬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SLOW TOUR

정음구절초축제

구절초와 함께하는 꽃밭 음악회 매일 오후 2시, 5시

구절초 꽃밭 야간조명 매일 밤6시~9시

개막축하공연 2013.10.5(토) 오후 4:30

정음시 산내면 매죽리 571

2013.10.5(토)~13(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주최 | 정음시 주관 | 산내면종합개발협의회 후원 | 전주 MBC,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NAVER 검색하기 정음구절초축제 > 즐겨찾기